

북한의 문화정책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 현황과 성과

옥승철
옥스퍼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김정은 시대의 문화정책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새로 강조한 국가 정책의 키워드는 ‘문화’이다. 한국의 북한 이슈를 소개하는 언론을 보면 평양에 새로 지어진 물놀이장 등의 위락시설에서 즐겨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문화와 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2019. 4. 11. 개정) 제3장 문화 제53조의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에서 보듯이 북한의 헌법에 문화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공원·유원지 관리법’(2013. 5. 29.) 제3조(공원, 유원지의 건설원칙)에는 “공원, 유원지 건설은 날로 늘어가는 공원, 유원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와 마을, 풍치 좋은 지역에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질적으로 건설하며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도록 한다”라고 적으므로 유원지의 현대적 개건과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다시 한 번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에 걸맞은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 극장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체육관 그리고 유원지 등의 위락시설 확충을 지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정책 도입 이후 북한 도시의 문화시설 조성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평양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

도를 알아봄으로써 북한의 문화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의 문화 관련 공공시설 현황

놀이공원(위락시설)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쓴 문화시설은 계급에 상관없이 대중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다. 수영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국내의 테마파크 같은 유원지는 계층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다. 평양의 위락시설로는 능라도 유원지의 능라곱 등어관과 문수물놀이장 등이 있는데, 특히 북한 문화시설 홍보의 대표적 시설물은 바로 문수물놀이장이다.

문수물놀이장은 2015년에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기존의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였으며, 설계 및 공사단계부터 김정은이 직접 감독하였다고 한다. 건설이 끝난 후에는 김정은이 시찰하는 기록영화까지 찍었다. 이 밖에도 평양만경대유회장, 미림승마구락부, 능라인민유원지 등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지어졌다.

체육시설

김정은은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인 이설주와 함께 자주 경기장의 시설을 방문하고 초청 인사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스포츠 문화 통치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넓은 체육 시설물을 시찰하면서 개·보수를 강하게 지시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체육단지의 건설을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세워진 대표적 체육시설로 보통강변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곳은 테니스장·농구장·배구장·육상트랙 및 숙소 등 현대식 체육단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최근 북한의 문화 관련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이다. 평양에는 주민들의 출퇴근과 이동을 위해 지하철, 무궤도전차, 궤도전차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도 운송수단이 빈번히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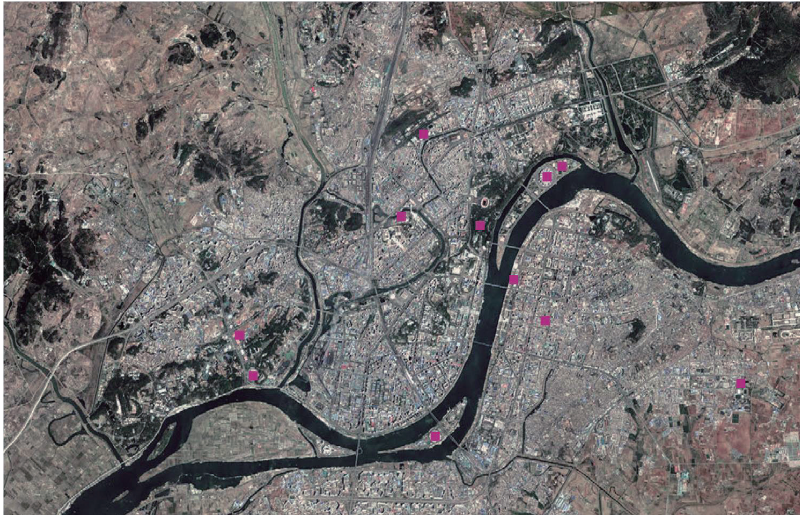
2019년 평양의 위락시설

출처: Choson Exchange의 보고서 <Productive Pyongyang>의 평양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조사·분석 후 필자 작성



김정은 시대에 개축된 수영장 시설인 문수유회장 2009년 문수유회장(상), 2019 현재 문수유회장(하)

출처: 구글어스



2019년 평양의 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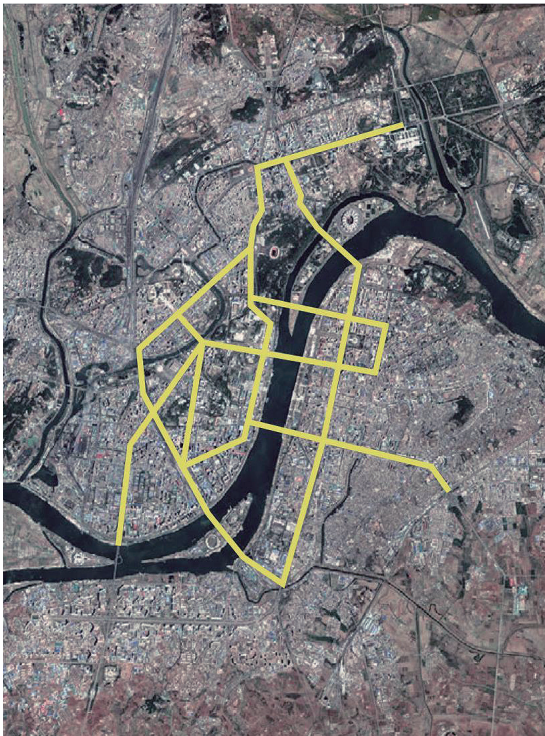
출처: Choson Exchange의 보고서 <Productive Pyongyang>의 평양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조사·분석 후 필자 작성



신축된 보통강변의 체육시설

2011년 보통강변의 섬(상),
2017 보통강변 섬에 세워진 체육시설(하)

출처: 구글어스



평양의 자전거 전용 도로

출처: Choson Exchange의 보고서 <Productive Pyongyang>의 평양 위성사진을 활용, 평양의 외국인 자전거 투어 여행 프로그램의 자전거 루트와 그들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 위성지도를 분석하여 자전거 도로를 지도에 필자 작성

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 또한 자전거로 출퇴근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자전거꾼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전력난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때문에 김정은은 2016년에 “전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평양에는 김정은의 지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평양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정책과 공공시설 조성의 성과:

북한 주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문화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조성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2018년 8월 필자는 싱가포르 NGO인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북한 도시개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북한 각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bikeroad-08182016083230.html

북한 주민 대상 공공시설의 수준 및 개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시설	현재 수준	개발 필요성
체육시설	7.16	7.00
위락시설	7.34	6.06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6.19	5.78

출처: Chua(2018)

평양 주민이 작성한 설문조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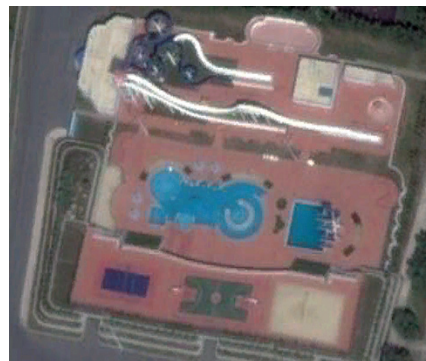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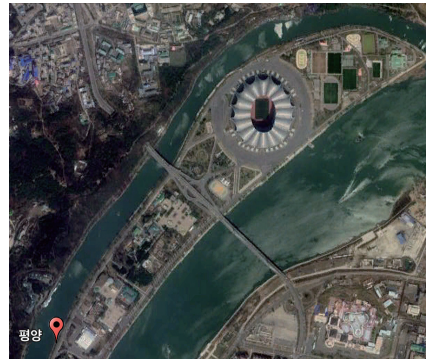
Public Spaces 공공시설			
17 Sports Facilities 체육시설	5		10
18 Parks 공원	10		3
19 Amusement Parks 오락시설	3		10
20 Cultural Facilities 문화시설 배:영화관, 공연장	10		8
21 Hills & mountains 휴식할수있는곳 (언덕, 산)	4		7
22 Water landscape 호수나 강에 대한 접근성	10		10
23 Ecological Corridors 동물 및 식재할수있는 곳 (대동강변)	10		10
24 Green Spaces 식물원의 작은 광터, 공원	7		10
25 Plaza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5		10

출처: Chua(2018)

도시를 분석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향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통일 후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프로젝트이다. 설문조사는 조선익스체인지가 평양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니 MBA 교육을 실시할 때 북한 측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다. 설문주제는 평양의 체육·오락·문화시설에 대한 현재 수준(Current Strength)과 개발 필요성(Necessity of Development)으로 나누고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위락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위락시설의 만족도는 7점 대로 높고 개발 필요성은 6점 초반대로 낮은 것으로 보아 위락시설 관련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좀 더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나타났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만족도 6.19와 개발필요성 5.78로 둘 다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개발필요성도 낮게 나타난 이유는 영화관에서 상영

하는 영화가 주로 북한 및 구소련의 체제 관련 영화이기 때문에 탈북자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민들의 영화관 이용률은 낮다. 또한 고급 문화시설이 한 지역에만 몰려 있어 접근성이 낮은 이유도 있다. 평양의 문화·위락시설의 이용 현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평양 출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2명으로 5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보통 40대 이후의 평양 주민들은 청룡공원 같은 곳에 모여서 궁중무용 등 즉석 공연을 관람하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끼리 공원을 방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원에서는 춤이나 태권도 같은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중년 계층은 위락시설보다는 공원에 주로 간다고 응답하였다. 젊은 청년들은 주로 개선청년공원, 모란봉, 만경대 유희장 등 위락시설에 자주 방문하며 친구들이나 가족과 능라도와 문수유희장의 수



2019년 능라도와 능라도 수영장
능라도(상), 능라도 수영장(하)

출처: 구글어스

영시절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만경대 유희장은 북한 연인들의 대표적 데이트 장소로 활용된다고 한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동 공원이나 놀라도 야외 수영장에 많이 방문한다고 설명하였다. 영화관은 있지만 이용률이 낮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영화는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체제 선전을 위한 구소련의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들의 흥미가 낮다고 전했다.

아직 문화시설은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예술극장 및 영화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상당히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문화적 역량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문제점은 평양의 문화시설, 특히 극장 몇 영화관 등은 평양의 특권층이 모여 살고 있는 중구 지역에 사진과 같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양 중구에는 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만수대예술극장 등 대부분의 극장과 영화 시설이 위치해 있다.

한성훈의 저서 <인민의 얼굴>에 의하면 북한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 중요한 사회이다. 북한은 주민들을 크게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나누는데,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핵심계층이다. 8·15 광복 이전 노동자, 노동당원, 빈농, 혁명가 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당·정·군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영예군인 등 1부터 12부류까지가 핵심계층이다. 이들 핵심계층은 부모로부터 사회성분을 물려받는다. 사회성분은 사회에 일하면서 얻어지는 계급인데, 북한에서는 보통 출신성분을 중요하게 본다(한성훈, 2019).

평양이란 도시는 그 자체로 핵심계층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 평양에도 서울처럼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2019년 평양의
영화관과 예술극장
출처: Choson Exchange의
보고서 <Productive
Pyongyang>의 평양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조사분석 후 필자 작성

그중에 평양 중구는 대표적인 특권층이 사는 곳이며 부촌이다. 중구는 대동강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는 전통적으로 인민무력부·노동당·내각 기관 등 중앙기관들과 숙소가 지어졌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재일교포나 개인사업으로 돈을 번 신흥 계층도 이곳에 새로이 편입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동강 이남은 일반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위의 지도에서 표시한 극장과 영화관 등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거의 중구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특권층의 문화적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사상적 재교육을 위한 고급 예술문화의 공간을 중구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놀이장과 유원지 같은 단순 문화오락 시설은 평양 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된 특징을 보인다.

평양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볼링장 등 위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역시 활발하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강조한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건설 노력은 위락시설과 체육관 등 시설의 양적 증가와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며 사회주의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락시설과 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도시공간에는 여전히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에서 고급문화로 여겨지는 교향악단, 연극이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특권층 거주 지역에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평양 도시공간에 배치되는 시설의 증감과 변화추이를 추적하는 연구를 통해 김정은 집권기의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라는 통치 도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9/2014042900448.html

참고문헌

- 1 Chua, C. (2018). A research on its recent urban transformation. Choson Exchange.
- 2 오마이뉴스. (2016). 김정은 제1비서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5월 8일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
- 3 한성훈. (2019). 인민의 얼굴. 돌베개.
- 4 박상기. (2014). 북 평양에도 '강북' '강남'이 있다. 양극화로 주민 간 갈등 깊어져. 조선일보, 4월 29일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9/2014042900448.html
- 5 김지은. (2016). 김정은 전국에 자전거도로 건설지시. 자유아시아방송[RFA]. 8월 18일 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bikeroad-08182016083230.html
- 6 조현성. (2016). 제7차 노동당 대회로 본 북한 문화 정책. 문화예술연구실 통일문화연구팀.